

C-4.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을 이용한 치근피개 술식의 임상적 평가

최경희, 백정원, 김창성, 최성호, 조규성, 김종관, 채중규

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, 치주조직재생연구소, BK21 의과학 사업단

치은퇴축은 변연치은이 백악법랑경계보다 치근쪽으로 변위된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. 치은이 퇴축되고 치근이 노출되면 심미적인 문제점과 치근과민증, 치근우식을 유발할 수 있다. 이러한 치은퇴축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또는 부적절한 칫솔질에 의한 외상, 치태 침착에 의한 염증성 반응등이 있으며 그 외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다.

치근피개를 위한 방법에도 여러 외과 술식이 개발되어 변위판막술, 유리치은이식술,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, 치주조직유도재생술등이 있다. 이들 술식중 Langer & Langer(1969)는 부분층 판막 아래 상피하 결합조직을 이식한 후 판막을 치관쪽으로 변위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법은 치은피개 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보고하였다.

본 증례에서는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(Langer & Langer method)를 이용한 치근피개 증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1

- 1) Pt name, age/sex : 이○○, 54/M
- 2) Chief complaint : 아래 왼쪽 송곳니 부위의 잇몸이 내려갔어요.
- 3) Intraoral status : Gingival recession on #34 (Miller's class III)
(buccal, width: 3mm, depth: 9mm)
- 4) Treatment
 - ① Scaling & TBI
 - ② CT graft on #34 (Langer & Langer method)
 - ③ Perio Tx
 - ④ Follow-up
4M c-p : residual recession 2mm (약 80% coverage)

증례2

- 1) Pt name, age/sex : 백○○, 26/F
- 2) Chief complaint : 오른쪽 위 잇몸이 많이 내려갔어요.
- 3) Intraoral status : Gingival recession on #13 (Miller's class I)
(buccal, width: 3mm, depth: 4mm)
- 4) Treatment

- ① Scaling & TBI
 - ② CT graft on #13 (Langer & Langer method)
 - ③ Follow-up
- 34M c-p : residual recession 0mm (100% coverage)

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은 임상적으로 예측성있는 치근피개 술식으로 사료된다.